

교회 소식

- 코로나 백신 접종이 끝난 사람들은(접종 완료 후 2주 경과)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CDC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정부 및 단체의 자체 지침을 지킬 것을 권장했습니다. 뉴욕 주정부와 시정부는 현행 마스크 착용과 거리 유지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Ridgeway Church와 Pleasantville UMC도 동일한 원칙입니다. 우리 교회도 당분간 마스크 착용과 거리 유지를 현행대로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Pleasantville Garden Work Schedule:
 - Tuesday, May 18 - 5pm-7pm 땅 고르기, 자갈 제거 등 Good Job for Kids: 돌맹이 제거, 갈퀴질 등
 - Thursday, May 20 - 5pm-7pm 담장 기둥 설치 Good Job for Kids:기둥 위치 측정 등
 - Saturday, May 22 - 9:30am-12:30pm 담장 설치
 - Sunday May, 23 - 9:30am - 12:30pm - 정원 심기. 어린이 환영
 - Tuesday, May 25 - 5pm-7pm - 정원 심기. 어린이 환영

다음 주 주일 예배 안내

- 대표기도: 최병식 집사 (시 104:104:24-34, 35b)
- 친교: TBA

예배 안내

- **주일예배:** 1:30pm, YouTube
- **English Service:** 12pm, Zoom
- **새벽기도 (월-토):** 6pm, YouTube
- **유치부 · 유년부 주일학교:** 10am, Zoom
- **중 · 고등부(Youth Group)예배:** 12pm, Zoom
- 주일예배처소: 448 Bedford Rd, Armonk, NY 10504
-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 Zoom ID: 817 3134 4066 (Sunday School)
939 020 5125 (EM/Youth)

성경 공부 및 모임

- **성경공부:** TBA
- **중 · 고등부 성경공부:** 금요일, 8pm, Zoom
- **구역모임:** TBA

섬기는 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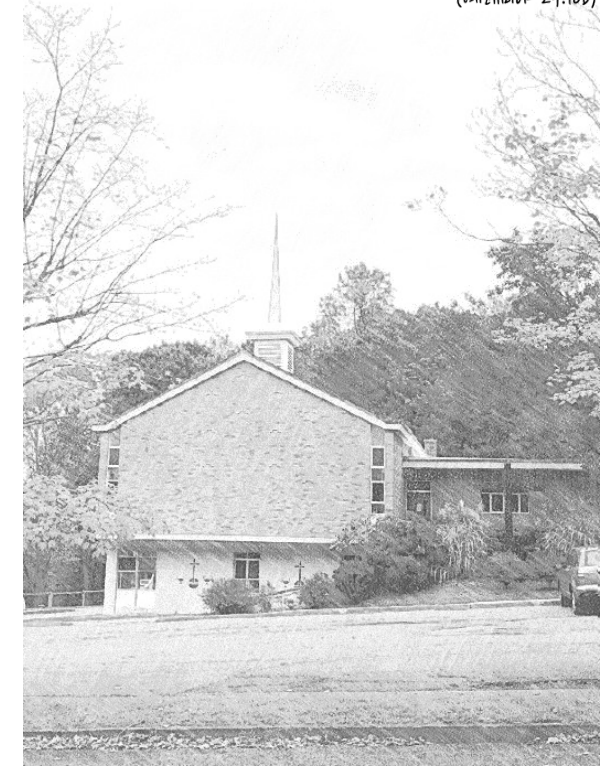
- **담임목사:** 이민영
-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기도

-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은혜를 범상히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 연구진, 정책 수립과 집행자들을 위해
 - 사회적 거리 두기와 활동 제한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에베소서 29:10b)



교회 연락처

주소: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전화번호: (914) 874-3606
Email: nyskch@gmail.com
Homepage: www.nysekwang.org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rder of English Service

<12p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Together

Call to Worship -----Together

Worship & Praise -----Together

Confessional Prayer-----Together

Apostle's Creed -----Together

Offering Prayer----- Leader

Word of God-----1 Chronicles 21:1-14 ----- Leader

Sermon-----“The Complex Consequence of Sin”-----Pastor Kim

Reflection Prayer-----Together

Benediction -----Pastor Kim



Memo

주일 예배 순서

<오후 1시 30분>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위한 묵상 ----- 인도자
Worship Meditation

*예배로의 초대 --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함께
Call to Worship

*신앙고백-----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68(32)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 다함께
Hymn We Praise Thee, O God, our Redeemer

대표기도 ----- 시편 1편----- 최경자 집사
Prayer Psalm 98

봉헌-----“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함께
Offering

성경봉독 -----마태복음 21:12-22 ----- 인도자
Word of God Mt. 21:12-22

설교----- “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 -- 이민영 목사
Sermon What Was Done to the Fig Tree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

*찬송-----564(299) “예수께서 오실 때에” ----- 다함께
Hymn When He Cometh

*축도-----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 설교 말씀

내리사랑

마태복음 21:1-11; 15-17

수많은 무리와 예루살렘에 드시는 예수님을 군중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와 왕으로 환영하며 소리질렀습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으나 나라를 잃고 압제 당하기를

거듭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과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당연한 빌드업이었습니다. 이제 유월절 수많은 순례객과 함께 예루살렘에 드시는 예수를 두번째 모세로 여기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복자가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속죄양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드셨습니다. 구원자요 왕이라며 환영하던 바로 그 군중들이 몇일 후에는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칠 자들을 야속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찬송과 외침을 인정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의 떠드는 소리도 “온전한 찬미”라고 하십니다. 군중들이 인식이, 어린아이들의 찬송이 정확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 진짜 왕, 진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찬송이 유효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께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의 지식, 권능자들의 업적, 종교인들의 헌신보다도 젓먹이의 입술을 통해 찬미를 온전케 하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내리사랑이라서 자식에게는 가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따지고 쟁수 없이 믿음으로 받을 내리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남의 아버지, 남의 왕 이야기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일 때 가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맙시다. 우리의 짧은 생각에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받은 것, 볼 수 있는 것으로 측정할 사랑이 아닙니다. 떠나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마침내 그 사랑을 입고 보게 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가 주권자입니다. 내 지식과 소원으로 “선하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이 틀에 주님을 가두지 맙시다. 내 뜻대로 하실 이유가 없는 주님이 하신 일을 인정합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내리사랑이라면 우리의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이유보다, 그 사람이 사랑 받을 자격보다, 내 사랑의 분량보다 언제나 한 걸음 더 사랑합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뿐 아니라, 나도 누군가로부터 내리사랑을 받은 것을, 내가 사랑받을 자격보다 언제나 더 사랑받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과 겸손과 사랑 가운데서 온전해 집니다(요일 4:7-12).